## 철저한 자기관리와 근면 · 성실함으로 스코틀랜드 문학 영웅이 된

# 월터 스콧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와 집념, 성실과 근면, 정직과 선의, 박애와 상조, 시간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등...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나 제도의 힘을 빌려 행복과 성공을 보장 받으려 할 뿐 스스로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번 달부터 이런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보다 고양된 자세를 통해 삶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는다. (편집자주)

**"인간은 일생 단 한 순간도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 외면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내면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인간이란 더 추운 곳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가는 여행객과 같다고 생각한다. 더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더 빨리 걸어야 한다. 가장 큰 영혼의 병은 추위이기 때문이다." -토크빌**

이렇듯 인간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을 지속해야 한다. 원시인들이 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으며 딛고 일어섰는가를 생각해 보라. 오늘날처럼 포근한 문명사회에서는 감히 상상 할 수 없는 피투성이의 삶을 영위해 왔음에 틀림이 없다.

고흐는 스스로 귀를 잘랐다. 격정 때문이든 광기 때문이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자신의 그런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켜 불멸의 명작을 남겼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폴레옹이 위대한 점은 피레네산맥을 넘었다는데 있지 않다. 그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세상에 보여 주었다는데 있다. 바로 '불가능은 없다' 고 한 말이다. 이 말은 수많은 인류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큰 고난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보할 수 있으

*승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한다.*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고, 감정을 느꼈고, 지금의 당신이 있도록 만든 선택들을 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 이란 사실을 말이다.*

며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회피하거나 절망에 빠져 버린다. 극복하려는 생각보다 그 고난에 휩싸여 스스로 생채기를 내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불운하다고 느끼며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다 그 책임을 전가한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제도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은 정당한가? 일부 불평분자들은 그렇게 말하며 진실이라고 믿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99%는 인생의 낙오자들이다. 러시아 속담에 '불운은 어리석음의 이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걸 하염없이 누군가나 그 무엇의 탓으로 돌리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승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고, 감정을 느꼈고, 지금의 당신이 있도록 만든 선택들을 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 이란 사실을 말이다.

런던에서 기차로 4시간 정도면 닿는 옛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 가면 월터 스콧의 기념탑을 볼 수 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우상이다.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은 이곳 주민들이 돈을 모아 스콧의 기념탑을 만들 만큼 대단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스콧은 1771년 8월15일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반란의 폭풍이 노도처럼 휩쓸고 간 뒤였다. 왕당파(재코바이트)세력이 명예혁명으로 왕위에서 축출된 스튜어트 일가(제임스 에드워드와 찰스)를 왕위에 복원시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배역의 땅으로 초토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스콧은 생후 1년 반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어린 시절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보냈는데, 이때 그는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민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훗날 그의 주요 작품들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었다.

대부분의 문필가들은 유약성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스콧은 오늘날 평론가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국민들이 그의 문학적 업적만을 추겨 세우든 말든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다. 그는 혹독한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도 불평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약한 문인들이 패거리를 지어 다니며 나라나 사회제도에 대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들은 한두 편의 시나 소설을 써놓고는 술을 마시거나 유랑을 하며(작품 구상한다는 핑계로) 세월을 낭비했으나 그는 달랐다.

그의 일생은 성실한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탁월한 근면성과 묵묵한 정신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청년기에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더욱 단련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문서 베끼는 일을 맡아했는데 이 일은 보통의 인내력과 정신집중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이었다. 상상해 보라. 하루 종일 문서를 베끼고 있는 일이 얼마나 단조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드러누울 핑계를 찾을 그 시간에도 책을 읽고 그 의문성에 도전하였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절도 있게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의 습관이 밑천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롭고 지루한 일인가를…. 매일 되풀이 된, 시지프스의 노역과도 같은 일과 중에서도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밤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드러누울 핑계를 찾을 그 시간에도 책을 읽고 그 의문성에 도전하였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절도 있게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의 습관이 밑천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문서 베끼는 일을 하면 일정한 단어 수로 계산해 1장 당 3펜스를 받았다. 만약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24시간동안 약 120장을 베낄 수가 있어 약 30실링을 더 벌수가 있었는데 스콧은 책을 사야 할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 해결했다.

스콧은 일부 잘난 척하는 문인들이 "천재는 인생의 평범한 규칙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망언을 해댈 때마다 하루하루 실질적인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인간의 자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평범한 규칙에 대한 혐오감이나 경멸감은 천재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스콧은 나중에 에딘버러 민사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낮에는 출근해 각종 문서 공증하는 일을 처리했다.

스콧의 전기를 쓴 록 하트는 이렇게 평했다.

"적극적으로 집필을 한 시기에 1년 중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가면서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그의 생애 두드러진 특징이다."

스콧의 생활신조는 생활비는 일을 해서 벌고 저술활동으로는 자기만족과 사회에 대한 공헌(당시는 계몽)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문학을 내 지팡이로 삼기로 했다. 목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일하는 것이 신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라.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유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스콧은 철저한 시간관리자이기도 했다. 1분 1초를 쪼개 썼으며 그런 보답은 방대한 저술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불을 지피고 면도를 한 다음 단정한 차림으로 6시에 책상 앞에 앉는다. 원고를 책상 앞에 가지런히 놓고 주위에 참고서적을 둘러가며 정렬해 놓았다. 가족들이 아침식사를 할 즈음이면 그는 벌써 하루 일과의 반 이상 처리해 놓았다. 사람들이 보석 오팔을 슬픔과 눈물, 변덕의 돌이라고 믿게 만든 그의 소설 '기엘스타인의 앤'(오팔을 애장한 주인공 하마이어가 오팔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나 '부적' '최후의 음유시인의 노래' '호수의 여인' 등 주옥같은 작품들은 바로 그의 이런 근면성에서 나왔다.

겸손 또한 그의 잘 알려진 미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이런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평생 나의 무지 때문에 시달려 왔으며 여러 가지 애로를 느꼈다."

스콧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부모나 사회 심지어 국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다른 것에서 얼마나 많은 단점을 발견하건, 사회, 국가적 모순과 제도

*스콧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부모나 사회 심지어 국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다른 것에서 얼마나 많은 단점을 발견하건, 사회, 국가적 모순과 제도를 비난하건 말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진 못할 것이다. 변화를 만들고 다른 뭔가를 하는 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상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당신이 기회를 잡고 만들어 나가라!*

를 비난하건 말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진 못할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는 환경은, 바로 그 자체의 성격상,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구의 자전에 대해 불평하는 소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계절을 만들어 왜 우리를 늙게 만드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것은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불평한다고 그것을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지구의 자전을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사계절을 만끽하기 위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며 스키를 타고 꽃을 감상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를 짓고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재난을 피한다. 왜 폭풍이 불고 비가 오며 눈이 오냐고 손가락질 해대지 않는 것이다. 뛰어난 사업가들은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관광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바로 불평대신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지혜인 것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노력과 돈과 시간이 든다. 그것은 어려울 수도, 힘이 들고 골치 아플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바짝 엎드린 채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세를 버리고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격언처럼, '그저 거기 가만 앉아 불평하지 말고, 성실 · 근면한 자세로 한발 한발 나아가라.'

변화를 만들고 다른 뭔가를 하는 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상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당신이 기회를 잡고 만들어 나가라!

**주장환** 님은 서울신문사(스포츠서울), 세계일보를 거쳐 파이낸셜뉴스 문화부장, 국제부장, 유통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언론연구원, 캠브리지대학을 연수하였으며 충효예실천운동 본부전문위원, 한국바디워프로페셔널협회고문, 언노련민주언론실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대학원평생교육원, 삼성, GS문화원 등에서 「신문을 통한 우리 경제 엿보기」, 「문학의 이해-소설과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하는 NIE / 논술여행」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논리강의』, 『논술이라고?, 너 딱걸렸어』, 『노벨문학상 소프트 1,2』, 『과학퍼즐』 (문화체육부 선정 추천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식논술陣법 NIE』, 『로즈여사에게 배우는 특별한 자녀양육법 26』등과 장편소설 『그 바닷가 헛간은 따스했다』, 『사바카』, 『겨울새 물살털기』, 시집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집 한 채』, 번역서 『독불장군처럼 살아라』, 『오사마빈라덴』, 『사랑을 주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